

부산체육독독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51**
2024. 07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 최재우

부산체육 꿈나무

연산초등학교 높이뛰기 정예림

부산체육 스타

부산광역시체육회
근대5종팀 김세희 선수

체육회 수탁시설 소개

신평장림체육관



2e4d83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부산체육독톡'

CONTENTS

Vol. 51
2024. 07

1

부산체육人

지질학 연구에서 시작된 남다른 산 사랑

부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 최재우



2

부산체육
꿈나무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기쁨

연산초등학교 높이뛰기 정예림



3

부산체육
스타

‘노력’이 재능이라는 걸 증명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근대5종팀 김세희 선수



4

체육회 수탁시설 소개

신평장림체육관





지질학 연구에서 시작된 남다른 산 사랑

부산광역시산악연맹 최재우 회장

땅과 지구를 연구하던 지질학도가 산악인이 한 데 모인 단체의 장이 되기까지
근 40년을 산 곁에서 살며 산을 사랑해온 최재우 부산산악연맹회장.
남은 임기를 누구보다 바쁘게 보내고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 부산산악연맹 사무실을 찾았다.

29대 회장 임기를 다해 가는 지금도 그는 여전히 어깨가 무거움을 느낀다. 지난 몇 년간
회 장직을 별 탈 없이 수행해왔지만,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마음 가벼웠던 적이 없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우리 연맹은 만 55주년을 이어온 유서 깊은 단체인데, 과거 선배들이 잘 이끌
어주신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하필 제가 29대 회장이라,
마무리를 잘해서 새롭게 시작할 30대 후임 회장에게 직을 넘기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선배들이 쌓아온 업적을 계승하고 연맹 회원들과 앞으로 산을 사랑하게 될 후배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맹을 만들고 싶다는 최 회장은 안전한 산악 활동과 문화 확산을 위해 연맹이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산은 아름답고 경외롭지만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연맹뿐 아니라 지역단위 산악회가 초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네 뒷산’이라 불리는 작은 산에서도 실족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우리 연맹에 속한 민간산악구조대가 정기적으로 자연 암장을 개보수하고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 소방대와 수색작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순수하게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산이 조금은 안전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최 회장은 동료 산악인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산악인들 간의 유대감은 어느 공동체 구성원들이 갖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산은 아름답지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동료들이 더 애뜻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산악인 동료들이 더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산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연맹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기쁨

연산초등학교 정예림 학생



육상부가 없는 학교에서 전문 선수들을
제치고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높이뛰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화제다.
기적 같은 드라마의 주인공,
연산초등학교 6학년 정예림 학생을 만나보았다.

정예림 학생이 높이뛰기 종목에 입문한 것은 작년 5학년 1학기부터였다. 체육시간 수업 중 높이뛰기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한 기록을 내는 것을 본 하기상 체육교사와 최윤희 스포츠강사가 본격적인 훈련을 권유한 것이 계기였다. 정예림 학생은 방과 후 따로 연습을 시작하며 점차 높이뛰기 능력을 키웠고, 기록 역시 전국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부산대표로 선발되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높이뛰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6~7세부터 훈련을 시작한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짧은 기간 연습한 정예림 학생이 금메달을 땀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였다.

“수업 시간에 높이뛰기를 하는 게 재미있어서 처음에는 가볍게 한번 도전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성적이 잘 나올줄은 몰랐어요. 금메달까지 따게 되어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친구들이 나중에 올림픽까지 나가게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 소감을 밝히며 정예림 학생은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금메달을 딴 후 정예림 학생에 대한 주위의 기대도 한층 높아졌다. 나중에 올림픽에 출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장래에 꼭 높이뛰기 선수가 되어야겠다고 확실히 진로를 정한 건 아니다. 체육교사나 상담 선생님도 되고 싶다. 일단은 지금은 가장 하고 싶은 게 높이뛰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체육중학교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은 다가올 교육감배 육상대회, 교보생명컵 육상대회를 대비해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의 기량을 유지하면서 지난번 때처럼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어요.”

수줍은 듯 해맑은 미소로 당차게 포부를 밝히는 정예림 학생.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같은 열정과 성실한 자세로 무지갯빛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한층 더 높이 도약하길 응원해 본다.

'노력'이 재능 이라는 걸 증명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근대5종팀 김세희선수



지난 3월, '제41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대회' 제주 경기에서 박가연, 최주혜 선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한 김세희 선수. 그는 2023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근대5종 여자 단체전 동메달의 주역이자, 2021년 '카이로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혼성계주 금메달, 2019년 '근대5종 아시아 선수권대회' 개인전 금메달,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근대5종 여자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쳐 근대5종 간판선수로 꼽힌다.

그런 그이기에 '제41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대회'에서의 우승은 당연한 결과라 여길 수 있지만, 무릎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었던 터라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었다.

“작년의 제 몸이 아니다 보니 대회 3주 전까지도 운동을 제대로 못 했어요. 우승은 못 하더라도 ‘재미있게 하자’는 마음이었는데, 선수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경기 운영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어요.”

김세희 선수는 선수로서 자신의 여정,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그랬듯이 근대5종의 재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라고 한다. 종목별로 점수가 엮치락뒤치락하는 걸 보고 있으면 자신도 정말 재미있다고. 거기에 펜싱, 승마, 레이저건 각 종목별 매력을 설명하는 반짝이는 눈과 조금은 격앙된 목소리에서 근대5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올해 우리나라 근대5종 국가대표팀은 역대 최고 성적을 내고 있다. 김세희 선수는 후배들의 활약을 보며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는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그는 10월에 있을 전국체육대회와 다음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에서의 목표는 금메달! 어디선가 읽었다는 ‘촘촘히 준비하면 설렘이 두려움을 압도한다’는 문구에 감명받아 노력하고 성장해 온 김세희 선수. 이제는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한다는 그에게 금빛 결실이 이어지길 응원한다.





쾌적함과 새로움으로 체육인의 마음을 사로잡다

신평장림체육관

신평장림 산업단지에 쾌적한 체육관이 탄생했다.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구성원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과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신평장림체육관을 만나보았다.



신평장림체육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산업단지 내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국비 50억원, 시비75억원)을 통해 건립되었으며, 2024년 5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부산광역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운영부장, 총무과장, 교육과장, 접수 및 안내, 미화, 시설, 수영 및 헬스 지도자, 수상안전요원 등 상근직원 18명과 파트강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규 개관한 체육관인 만큼 시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헬스장이 자리 잡고 있고 수영장은 길이 25m, 최대 수심 1.4m의 4개 레인과 유아풀이 있고 헬스장에는 트레드밀을 포함한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돼있다.

신평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아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근무 전후로 체육활동을 즐기며 근로자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평장림체육관은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운영 방향으로 삼고 있다.





카드 자세히 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필수 안내사항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